

아동용 어머니-자녀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정 교 영

신 희 천[†]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에 바탕을 두고 아동용 어머니-자녀 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문항제작을 위한 자료수집과정을 거쳤고, 아동상담 및 놀이치료 전문가와 자기결정이론 전문가들의 자문 및 평정을 통해 47문항의 예비문항을 제작하여, 이를 초등학교 3,4학년의 아동들에게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연구자의 가설과 같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 요인구조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최종 14문항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확정된 14문항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상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세 가지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또한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애착척도, 자기효능감척도, 자기결정행동척도와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절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준거관련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제한점 및 활용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용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개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어머니-자녀 관계, 타당화

[†] 교신저자 : 신희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Tel : 031-219-2747, E-mail : hcshin@ajou.ac.kr

최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연세대 사회발전 연구소와 한국방정환재단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4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발표한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은 ‘삶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53.9%만 ‘그렇다’고 응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5월5일자). 이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우리 삶의 실상을 반영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성인뿐만 아니라, 점점 그 연령대가 낮아져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영유아들에게까지 그 범위가 넓혀진지 오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미래의 경쟁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일찍부터 학원이나 과외 등을 통한 선행학습에 몰두하는 경향이 높고, 학교 수업 외에 수많은 특기적성교육과 방과 후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어, 자신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다양한 과외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초등학교 자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부모의 기대 및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만족감과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근래 들어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무엇이 안녕(well-being)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안녕(well-being)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전통으로 구별된다(Ryan & Deci, 2002a). 하나

는 ‘안녕’을 쾌락적인 즐거움의 관점에서 정의한 ‘주관적인 안녕(Kahneman, Diener, & Schwartz, 1999)’이고 다른 하나는 행복론적 안녕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진정한 잠재력의 실현 및 성장의 관점에서 정의한 ‘심리적 안녕(Ryff & Singer, 1998)’이다. 심리적 안녕이란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의 다차원적인 틀로서 자아수용, 개인의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에 대한 지배력 및 자율성을 포함한 폭넓은 안녕감을 일컫는다(Ryff & Keyes, 1995). 자기결정이론에서는 후자의 행복론적 개념의 ‘심리적 안녕’을 사용하여 심리적 욕구만족과 안녕 사이의 관련성을 반복해서 검증해오면서(Sheldon, Ryan, & Reis, 1996; V. Kasser & Ryan, 1999; Barrd, Deci, & Ryan, 2000; Ilardi, Leone, Kasser, & Ryan, 1993), 최근에 ‘심리적 안녕’에 대한 가장 설득력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아영, 이명희, 전해원, 이다솜, 임인혜, 2007).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인본주의 심리학, 정신분석학, 애착이론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최근 30년 동안 인지적 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 유기체적 통합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 인과 지향성이론(causality orientation theory), 기본 욕구이론(basic needs theory)으로 발전되어 왔다(Ryan & Deci, 2000).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성장을 향한 능동적인 경향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발달은 조직화, 통합, 성장을 추구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발달에 우호적인 사회적 환경이 제공되면 발현되고 그렇지 않으면 발달은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날 많은 병리적인 현상들을 정상적인 통합과정이 방해받은 결과로 일어난 것으로 본다(Ryan, 1993).

자기결정이론의 네 가지 하위이론 중에서 기본 욕구이론은 욕구만족과 정신건강 사이의 연결고리를 다룬 이론으로 볼 수 있는데, Deci와 Ryan(2000)은 지속적인 심리적 성장, 통합감 및 안녕감에 핵심적인 기본 심리적 욕구를 제안하였다. 이들은 모든 생물에게 유기체의 신체구조를 생존시키고 재생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 있는 것처럼, 기본 심리적 욕구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였다(Sheldon & Niemiec, 2006). 기본 심리적 욕구는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세 가지 욕구로 이루어졌다. 이 세 가지 기본 욕구들이 충족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부모 혹은 교사나 같은 사회화 대행자가 전해주는 문화적 규범을 잘 수용하여 친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지만, 기본적 욕구가 좌절된 채 성장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지 못한다(이민희, 2007).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Niemiec, Lynch, Vansteenkiste, Bernstein, Deci, & Ryan, 2006; Niemiec & Ryan, 2009; Reinboth, Duda, & Ntoumanis, 2004; Veronneau, Koestner & Abela, 2005)과 대학생 및 성인(Hahn & Oishi, 2006; Meyer, Enstrom, Harstveit, Bowles, & Beevers, 2007; Reis, Sheldon, Gable, Roscoe, & Ryan, 2000; Standage, Duda, & Pensgaard, 2005; Vansteenkiste, Lens, Soenens, & Luyckx, 2006)을 대상으로 한 연구, 그리고 동서양 학생들을 비교한 몇몇 연구(Hahn & Oishi, 2006; Sheldon, Elliot, Kim, & Kasser, 2001)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 및 인종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문은식, 2007; 안도희, 박귀화, 정재우, 2008; 최희철, 황매향, 김연진, 2009) 대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덕진, 양명환, 2006; 한소영, 신희천, 2009)에서 세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와 안녕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밖에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과 진로결정,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 등과의 관계를 보여준 연구들(김은영, 2007;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이민희, 2007)도 있다.

여기서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 심리적 욕구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자율성(autonomy)이란, 심지어 외부적 자원에 의한 영향이 있을 때조차도 흥미와 자신이 부여한 가치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Deci & Ryan, 2000), 자신이 행동의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을 말한다. 자율성이 외부의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는 것인 독립성(independence)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의존성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Ryan & Deci, 2002b). 자기결정이론의 관점에서 보는 자율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요구받거나 강요된 행동과 가치도 자율적으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모의 지지와 안내에 기꺼이 의존하면서도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Soenens, Vansteenkiste, Lens, Luyckx, Goossens, Beyers & Ryan, 2007). Reeve(2005)는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자율성 욕구가 내재적 동기증진과 긍정적인 감정 상태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유능성(competence)이란,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연마하고 표출하는 기회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유능하다고 하는 느낌을 일컫는데, 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지닌 기술과 역량을 증진시키고 이를 유지

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시도와 최적의 상황에서 도전을 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능성은 습득된 기술 혹은 능력이라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얻게 되는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Deci & Ryan, 2002a). 또한 유능성 욕구의 지지는 동기의 내재화를 촉진하고 외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의 자기조절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Ryan & Deci, 2002b). 마지막으로 관계성(relatedness)은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으로 타인을 보살피며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하는 감정을 의미한다(Deci & Ryan, 2002a). 한편 유능성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개인이 혼자 수행하는 과제에서 내재동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 관계성은 자율성이나 유능성보다는 내재동기를 결정하는데 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내재동기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Ryan & Deci, 2002b). 또한 그동안 대부분의 실증연구들에서도 자율성, 유능감과 관계성은 독립적으로 취급되었다. Ryan과 Deci(2007)은 세 가지 요인이 항상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이들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선행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안하였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 기본 욕구가 동시에 나타나기 보다는 하나의 욕구가 다른 욕구의 충족을 앞서기도 하고, 다른 형태의 욕구의 충족이 또 다른 욕구의 충족을 능가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김아영 등, 2007).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사회적 환경에서 이 세 가지 욕구가 모두 고르게 충족된 사람은 건강한 기능을 발휘하지만(Sheldon & Niemiec, 2006), 욕구를 방해받거나 충족시키지 못하면 인간의 성장과 안녕에 문제를 일으키며, 궁극

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인지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았다(Deci & Ryan, 2000, 2002a). 또한 성장과정에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분히 충족된 사람은 외재적 욕구보다는 내재적 동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성장한 이후의 삶에서도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중시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긍정적이며, 성장과 자기실현, 주관적 행복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Reeve, 2005). 이 외에도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 학생들은 공부하는 동안 주의집중력, 참여도, 지속성, 흥미, 행복감, 열정, 안정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Grolnick & Apostoleris, 2004). 다시 말해, 개인이 학습, 성장, 건강한 발달을 경험하고 심리적 안녕을 지각하느냐는 개인의 환경이 세 가지 심리적 욕구를 표출하고 충족시키는 것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좌절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Reeve, 2005).

자기결정이론은 개인의 기본 심리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사회적 맥락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로부터 지지받았을 때 내재적인 동기부여와 내면화가 촉진되고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Ryan & Deci, 2000a). Ryan(2005)은 자율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강조하였다. 이 개념은 자율성뿐만 아니라 관계성과 유능성 욕구의 충족과도 연결된다고 보고, 자율성의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개인의 안녕이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심각한 경우엔 경계선 성격장애와 같은 병리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의 기본 심리적 욕구와 더불어 유의미한 타인의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뿐만 아니라 이들의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다양

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Gagne, 2003; Ratelle, Larose, Guay, & Senecal, 2005; Vierling, Standage, & Treasure, 2007)에서 보고되었다. 또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심리적 안녕의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Niemiec, Lynch, Vansteenkiste, Bernstein, Deci, & Ryan, 2006; Veronneau, Koestner & Abela, 2005)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 교사, 친구 등 친밀한 대상의 자율성 지지와 이에 따른 학생의 심리적 욕구만족은 학업수행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기능(Soenes, Vansteenkiste, Lens, Luyckx, Goossens, Beyers, & Ryan, 2007), 학업에 대한 동기와 안녕(Chirkov & Ryan, 2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안도희, 박귀화, 정재우, 2008)의 결과에서도 부모, 교사 및 친구의 자율성지지가 기본 심리적 욕구와 심리적 안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La Guardia, Ryan, Couchman와 Deci(2000)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세 가지 욕구를 애착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민감한 양육자는 자녀의 욕구, 신호, 행동의 주도에 시기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며, 이러한 반응은 결국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만든다. 애착에서 민감성, 반응성이라는 개념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등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와 관련된다. 즉 민감한 양육자는 자녀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만족의 경험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Ryan(2005)역시 기본 심리적 욕구와 애착을 연결지어 설명하였는데,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자는 기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자율성을 발전시키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도록 기여한다고 하였다. 즉 이들에 따르면,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이 애착형성의 선행조건이며, 안정적인 애착형성은 세 가지 기본 욕구들을 지지하고 충족시키는 양육환경이 지속적으로 제공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 심리적 욕구의 충족이 개인의 안녕에 큰 기여를 하며, 기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그 개인을 둘러싼 부모나 교사, 친구 및 직장동료 등 사회적 환경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 이를 고려해 본다면, 아동기 자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의 욕구만족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심리적 안녕과 기본적 욕구 및 유의미한 타인의 자율성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기에 적당한 도구가 제작되어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인 또는 청소년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측정하는 척도들은 이미 국내외에 많이 개발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 La Guardia, Ryan, Couchman와 Deci(2000)이 연인, 가까운 친구, 부모와의 관계 내에서 욕구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였다. 다만 문항수가 적어 한 구성개념의 스펙트럼을 충분히 측정한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한소영, 신희천,

2009). 국내에서는 이명희(2008)가 개발한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가 있다. 이 척도는 “일반적” 기본 심리욕구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한 개인이 삶 전반에서 느끼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은 측정할 수 있으나 특정한 사회적 맥락이나 특정한 주요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은 측정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이민희(2007)는 La Guardia등이 개발한 척도를 토대로 원래의 척도를 번안하고 다른 문항들을 추가하여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친구들로부터의 욕구 만족을 따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작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한소영과 신희천(2009)은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심리적 욕구만족척도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들 척도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을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명희(2008)와 이민희(2007)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소영과 신희천(2009)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타당한 척도를 개발한다면 추후 아동 대상의 연구들도 활발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아동기 자녀와 가장 친밀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타인이 어머니라는 점에서 볼 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아동의 심리적 욕구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은 여러 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기 초기 때 형성된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후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의 대인관계의 바탕이 됨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로부터의 욕구만족을 살펴보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의 질이나 정신건강을 이해하는데 큰 도

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가 얼마나 지지되고 충족되고 있는지 아동이 지각하는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자녀의 기본 심리적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는 양육 환경인지 살펴볼 수 있다면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자녀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많은 교육적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의 심리적 욕구를 지지하거나 좌절시키는 양육환경을 제공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아동기의 주된 양육자가 대부분 어머니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자녀 관계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나와 있는 국내의 아동용 척도들이 초등학교 5-6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제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자들(Harter, 1982, 1983; Huebner, 1991a, 1994; Waters, Salmon, Wake, Wright, & Hesketh, 2001; Ratt, Bonsel, Essink-Bot, Landgraf, & Gemke, 2002)에 의해 자기보고가 가능한 연령으로 인정되는 초등학교 3-4학년 아동들을 포함시켜 척도사용의 연령범위를 보다 넓히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용 어머니-자녀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척도가 자기결정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3요인구조로 이루어졌는가?

둘째, 아동용 어머니-자녀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셋째, 아동용 어머니-자녀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아동용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를 다니는 3, 4학년예 재학 중인 8명을 대상으로 문항개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경기도 소재 10개 초등학교를 다니는 3~6학년생 663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절차

1차 예비연구 절차(문항 개발과정)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우선 자기결정이론에 관련한 문헌과 La Guardia, Ryan, Couchman와 Deci(2000)가 개발한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척도의 문항들과 한소영과 신희천(2009)이 개발한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척도의 문항을 토대로 상담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 3명과 토의하여 42개 문항의 아동용 예비문항을 만들었다. 문항에 대한 아동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놀이치료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아동상담전문가 2인에게 자문을 받아 문항들을 수정하였으나, 자문결과 전반적으로 아동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지고 아동에게 적합한 어휘선정을 위해 인터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아동에게 적합한 문항제작을 위해 개방형 질문지를 구성하여 초등학교 3, 4학년생 각각 4명씩 총8명(남: 5명, 여: 3명)을 대상으로 20-30분 동안 일대일 인터뷰를 하였다. 개방형 질문으로 ‘영희’등과 같은 가상의 초등학생이 경험한 내용을 예시로 들면서 “영희는 힘들 때 엄마가 위로해주

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줄 때, 엄마랑 사이가 좋다고 느낀대. 너는 어떨 때 그런 것 같니?” 또는 “철수는 집에서 엄마일을 도와드렸을 때 뭔가 뿌듯하고 잘해낸 것 같은 기분이 든대. 너는 어떨 때 그런 것 같니?” 혹은 “지영이는 엄마와 옷을 사러 갔는데 엄마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옷을 사기로 결정했다. 그럴 때 지영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유롭고 만족스럽다고 느낀대. 너는 어떨 때 그런 것 같니?”등으로 시작하였다. 질문의 큰 틀은 유지되되 준비한 질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진행하였다. 인터뷰한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고, 연구자와 3명의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이 함께 녹취한 내용을 분석 및 토의를 거쳐 85개의 문항들을 만들었다. 문헌조사 및 기존의 척도를 토대로 제작된 42개의 문항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85개의 문항을 합쳐 총 127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문항들을 놀이치료전문가 혹은 아동 관련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 21명을 대상으로 아동이 이해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5점 척도 상에서 3.7이상의 100개의 문항들을 추출하였고, 이를 다시 자기결정이론 전문가 3명에게 세 가지 하위구성개념(관계성, 자율성, 유능성)에 적합한 문항인지 평정을 실시하여 3.5이상의 평점을 얻은 문항들을 추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총 47개의 예비문항이 선정되었다.

2차 예비연구 절차

2차 예비연구에서는 1차 예비연구를 통해 얻은 47개의 예비문항들을 가지고 경기도 내 4개 초등학교 3, 4학년 총 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15명의 학생 중

불성실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286명이 작성한 설문지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남학생이 150명, 여학생은 136명이었으며, 3학년이 133명, 4학년이 153명으로 구성된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아동용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척도의 최종 문항들을 선별해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본 연구 절차

2차 예비연구의 결과를 통해 최종 확정된 아동용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 척도 14문항과 자기결정행동척도, 자기 효능감, 부모 애착 척도,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 척도를 2차 예비연구의 표본과는 별도로 경기도내 6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3~6학년 학생 348명을 표집하여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자 35명을 제외한 31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분포는 남자 142명, 여자 171명이었으며, 학년 분포를 살펴보면 3학년 108명, 4학년 82명, 5학년 89명, 6학년 33명, 무응답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고,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발척도의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변별 및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을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5.0 프로그램과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도구

아동용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아동들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

용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를 개발하였다. 1차 예비연구에서 밝힌 문항개발과정을 거쳐 47개의 예비문항들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구성개념 타당도, 수렴 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여 최종 14 문항의 아동용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3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관계성 5문항, 유능성 5문항, 자율성 4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형태는 각 문항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유사한 정도를 Likert식 4점 척도(4점: '아주 그렇다' ~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상에서 평정하는 형태로 되어있는데, 이는 실시하는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결정한 것이다. 부정형으로 기술된 1개의 문항만 역채점을 하였고, 나머지 모든 문항은 별도의 역산과정 없이 척도 전체 혹은 각 하위요인 별로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용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가 .8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 별로는 관계성 .77, 유능성 .79, 자율성 .75이었다.

자기 결정 행동 척도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척도의 하위요인인 자율성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 결정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 결정 행동 척도는 谷島, 新井, 松尾, 天貝, 佐藤, 崔(1996)가 제작한 13문항을 최경희와 新井(2003)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아동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1점 ('항상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에서 4점 ('항상 스스로 결정한다')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행동함에 있어 자기결정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경희와 新井(2003)이 측정 한 자기결정행동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결정 행동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1이었다.

자기 효능감 척도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척도의 하위요인인 유능성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용 자기 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 효능감 척도는 개인의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차징은(1997)의 것을 김아영(1997)이 수정한 일반적 자기 효능감 척도를 한혜진(2002)이 초등학생에게 알맞은 표현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다. 일반적 자기 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24개 문항으로 되어있다. 모든 문항은 1점('매우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혜진(2002)이 측정 한 자기효능감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80이었으며, 각 하위요인 별로는 자신감 .78, 자기조절 효능감 .83, 과제난이도는 .7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먼저 각 하위요인 별로 자신감 .79, 자기조절 효능감 .86, 과제 난이도 .74로 나타났으며, 자기 효능감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부모 애착 척도(IPPA-R)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척도의 하위요인인 관계성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용 부모 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 애착

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PPA-R)를 옥정(1998)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다시 김선희(2006)가 부모용만을 채택하여 학령초기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모 애착 척도 역시 어머니에 대한 애착 문항만 사용하였다. 모두 25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신뢰, 의사소통의 질, 소외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결코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김선희(2006)가 측정 한 부모애착척도의 전체 신뢰도계수는 .90이었으며, 하위요인 별로는 신뢰감 .87, 의사소통 .78, 소외감 .75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를 살펴보면, 각 하위요인 별로 의사소통 .89, 신뢰감 .77, 소외감 .68로 나타났으며, 척도 전체로는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면적 생활만족 척도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면적 생활 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 척도는 Huebner(1994)가 개발한 척도의 체제와 영역구성을 기초로 하여, 이정미와 이양희(2005)가 개발한 것으로 가족, 친구, 학교, 자아, 환경의 다섯 영역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지각을 묻는 34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역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2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아동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6점 척도 응답방식이다. 문항전체 신뢰도 계수는 .84이며, 각 하위요인 별로 보면 친구만족 .80, 학교 .82, 가족 .79, 환경 .79, 자아 .84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각 하위요인 별로 친구 .87, 학교 .86, 가족 .82, 자아 .77로 나타났으며, 척도 전체로는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

예비척도의 문항구성

앞서 1차 예비연구절차에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47개의 예비척도 문항을 가지고 경기지역 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315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통계치와 문항-문항 간 상관, 그리고 문항-총점 간

표 1. 최종 14문항 및 요인 부하량

문항내용	1요인 (유능성)	2요인 (관계성)	3요인 (자율성)
27. 엄마는 내가 잘 할 거라고 믿어주신다	.801	.092	-.155
37. 엄마 앞에서는 내가 자랑스럽다	.757	-.033	.091
35. 엄마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할 수 있어’라고 용기를 주신다	.752	-.054	.028
39. 엄마와 있으면 무엇을 하든 앞으로도 잘 해낼 것 같다	.721	-.023	.123
34. 엄마와 있으면 무엇이든 잘 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713	.017	.035
1. 엄마는 나를 좋아한다.	-.016	.819	-.017
15. 엄마는 나를 아껴주신다	-.024	.790	.061
5. 엄마와 같이 있을때 기분이 좋다	.026	.711	-.010
36. 나는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다	-.003	.705	-.019
44. 나는 엄마랑 친하다	.027	.678	.045
20. 나는 엄마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	.008	-.027	.832
23.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엄마에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	-.020	-.042	.822
11. 엄마 생각이랑 내 생각이 달라도, 나는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	.059	.050	.520
9. 엄마와 있을 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043	.158	.455
고유값(eigen value)	5.607	2.066	1.343
설명 분산(%)	36.947	11.750	6.474
누적 설명 분산(%)		55.170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877	.853	.772
전체 신뢰도 계수		.882	

상관을 검토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개발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자기결정이론에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요인 구조를 제안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3가지 구성개념으로 척도를 제작하였으므로, 요인 수를 3요인으로 고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식은 주축 요인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회전 방식은 세 가지 하위요인 간 상관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사교회전의 일종인 Direct-Oblimin 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절성 측정 지수(KMO 지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를 확인한 결과, KMO 지수는 .91,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 = 5575.08($df = 1081$), $p < .001$ 로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을 진행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척도에 포함될 문항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우선 요인구조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항들을 제거하기 위해 공통분(communality)값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Timothy(1995)가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4이하의 요인부하량을 가지는 문항들이나, 특정요인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문항으로 2개 이상의 요인에 .3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가지고 있는 문항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은 총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문항의 축소를 위해 본 연구자가 이론적 근거에 의해 분류했던 최초의 요인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요인에 속한 문항들 중 그 의미가 실제 모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 4개를 추가적으로 제거하였다. 예를 들어 30번 문항인 ‘엄마는 나를 이해해 주신다’의 경우 최초

에는 관계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문항이었으나 분석결과 유능성을 측정하는 문항들과 같은 요인으로 분류되어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통하여 47개의 예비문항들 중 최종적으로 자율성 4문항, 유능성 5문항, 관계성 5문항으로 총 14문항이 본 검사에 사용할 문항으로 결정하였다. 척도의 요인별 최종 문항 및 요인부하량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타당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¹⁾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설문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3개 하위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14개의 최종 문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표집에서도 3개의 요인구조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3요인 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자녀관계에서의 아동용 기본 심리적 욕구척도의 확인된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다. χ^2 값은 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하는 기본적인

1) 본 척도를 초등학교 저학년에 속하는 초3년생 집단과 고학년에 속하는 초 4~6년생 집단에서 모두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을 따로 구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저학년집단($n=108$)의 경우 CFI=.891, TLI=.779, RMSEA=.080이었고, 고학년 집단($n=204$)의 경우 CFI=.912, TLI=.875, RMSEA=.081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의 경우 초3~6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경우에 비해 적합도가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사례수가 작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용한 가능한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사례수를 좀 더 확보한다면 양호한 모형 적합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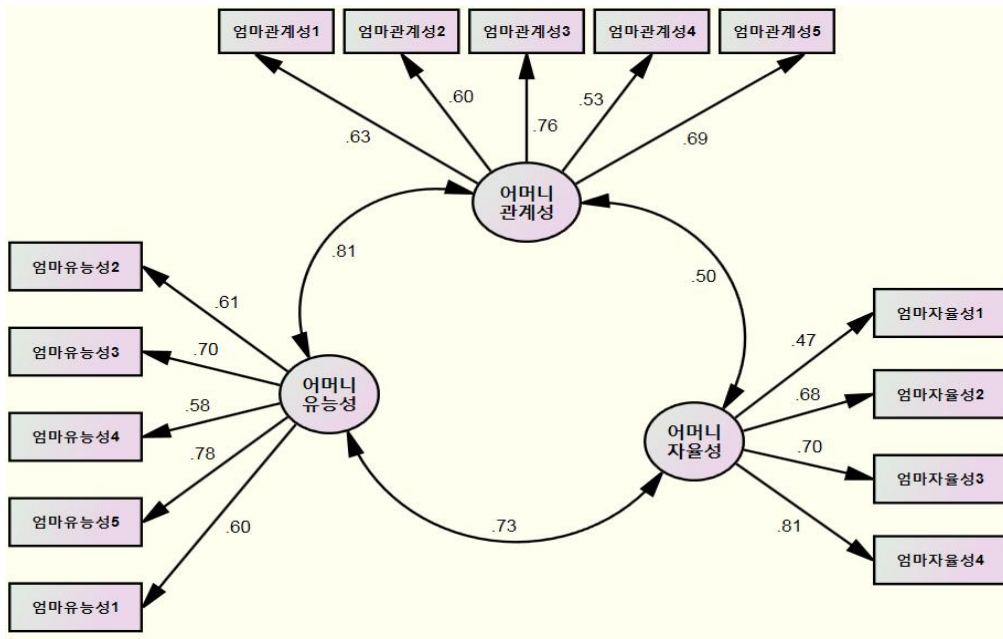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2. 3요인 모형의 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CFI	TLI	RMSEA(90% 신뢰구간)
3요인	174.61***	74	.930	.901	.066(.053 ~ .079)

주. *** p<.001

지수이지만, 표본의 크기에 상당히 민감하므로(홍세희, 2000),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덜 받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해석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홍세희(2000)의 제안에 따라 CFI, TLI, 그리고 RMSEA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CFI와 TLI의 값은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홍세희, 2000), RMSEA 값은 .05이하이면 좋은 모형, .08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이하이면 보통 수준을 의미한다(Browne & Cudeck, 1993; 홍세희, 2007).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FI=.930, TLI=.901, RMSEA=.066으로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자녀 관계에서의 아동용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는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등 3개의 하위구성 개념으로 이루어짐을 교차타당화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자녀 관계에서의 아동용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2차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하위요인 별로는 관계성 .77, 유능성 .79, 자율성 .75이었으며, 척도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요인 간 상관

표 3.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만족 척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 및 신뢰도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기본심리 욕구만족	Cronbach's α
관계성	1				.77
유능성	.657**	1			.79
자율성	.406**	.589**	1		.75
기본심리욕구만족	.782**	.901**	.807**	1	.87

주. ** $p < .01$

및 기본 심리 욕구 만족 전체와 하위요인 간 상관을 확인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기본 심리 욕구 만족 전체는 관계성 ($r = .782, p < .01$), 유능성 ($r = .901, p < .01$), 자율성 ($r = .807, p < .01$)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별로는 관계성과 유능성 ($r = .657, p < .01$), 관계성과 자율성 ($r = .406, p < .01$), 유능성과 자율성 ($r = .589, p < .01$)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세 가지 욕구들이 기본 심리적 욕구의 필수적인 요건임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수렴 타당도 검증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만족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어머니-애착척도, 자기효능감척도, 그리고 자기결정행동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계성 욕구만족은 부모 애착, 유능성 욕구 만족은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율성 욕구 만족은 자기 결정행동과 적절한 수준의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본

표 4.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 척도의 하위요인과 자기결정행동, 자기효능감, 어머니-애착척도간의 상관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기본심리욕구 만족
자기결정행동	.169**	.307**	.350**	.340**
자기효능감	.227**	.410**	.433**	.439**
자신감	.172**	.276**	.330**	.320**
자기조절효능감	.222**	.386**	.395**	.410**
과제난이도	.106	.276**	.256**	.264**
어머니-애착	.629**	.678**	.588**	.750**
의사소통	.610**	.677**	.594**	.746**
신뢰감	.631**	.644**	.512**	.702**
소외감	.342**	.388**	.395**	.450**

주. ** $p < .01$

심리적 욕구의 세 가지 하위요인인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욕구의 만족은 수렴을 가정했던 각각의 척도들과 적절한 크기의 상관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하위 요인들과도 고르게 높은 상관을 보였다.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

먼저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준거변인인 다면적 생활 만족도와 예측변인인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간의 상관을 확인해보았다.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결과 관계성($r=.439, p<.01$), 유능성($r=.568, p<.01$), 자율성($r=.450, p<.01$)은 다면적 생활 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욕구의 만족이 다면적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준거변인은 다면적 생활 만족도, 예측변인은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이었

으며, 예측변인들 간 상관이 높아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 중심화(centering)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3, 309)=53.49, p<.001$),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다면적 생활 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R^2)가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으로 투입된 관계성($\beta=.11, t(312)=1.82, p=.70$), 유능성($\beta=.39, t(312)=5.73, p<.001$), 자율성($\beta=.17, t(312)=3.04, p<.01$) 욕구의 만족 모두 다면적 생활 만족을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따라서 3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은 다면적 생활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표준 중다회귀분석에서 관계성의 효과가 경계적으로(marginal) 나타났기 때문에, 본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좀 더 명료하게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준거변인은 다면적 생활 만족도였으며, 1단계에서

표 5.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과 다면적 생활 만족도 간의 상관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다면적 생활 만족도	.439**	.568**	.450**

주. ** $p<.01$

표 6. 표준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준거변인: 다면적 생활만족도				
	B	β	$t(312)$	R^2 (adj- R^2)	F(3, 309)
관계성	.18	.11	1.82 ⁺	.35 (.34)	53.49***
유능성	.49	.39	5.73***		
자율성	.18	.17	3.04**		

주. ⁺ $p=.07$, ** $p<.01$, *** $p<.001$

표 7.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다면적 생활만족도					
	예측변인	B	β	t(312)	R ² (adj-R ²)	ΔR^2	F
1단계	어머니-애착	.46	.44	9.46***	.45	.45***	126.50*** (df=2, 310)
	자기효능감	.45	.36	7.65***	(.45)		
2단계	어머니-애착	.31	.30	4.72***	.47 (.46)	.02**	90.08*** (df=3, 309)
	자기효능감	.41	.32	6.93***			
	기본심리욕구만족	.29	.20	3.15**			

주. ** $p < .01$, *** $p < .001$

는 어머니-애착과 자기효능감을 예측변인으로, 2단계에서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추가적인 예측변인으로 투입되었다. 자기결정행동 척도는 1단계에서 예측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다면적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제외하였고, 어머니-애착과 자기효능감과 별개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다면적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애착과 자기효능감이 예측변인으로 투입된 1단계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2,310)=126.50$, $p < .001$] 어머니-애착 [$t(312)=9.46$, $p < .001$]과 자기효능감 [$t(312)=7.65$, $p < .001$] 모두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또한 예측한대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2단계 모형 역시 유의미하였으며 [$F(3,309)=90.08$, $p < .001$], 어머니-애착 [$t(312)=4.72$, $p < .001$], 자기효능감 [$t(312)=6.93$, $p < .001$],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t(312)=3.15$, $p < .01$] 모두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2단계 모형의 설명량은 1단계 모형에 비해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Delta R^2 = .02$, $p < .01$). 따라서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

족은 다면적 생활 만족도에 어머니-애착 및 자기효능감과 독립적인 설명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로써 변별타당도 역시 검증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에서 인간의 성장과 안녕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한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가 아동의 경우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서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아동용 어머니-자녀 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자기결정이론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고, La Guardia 등(2000), 이민희(2007), 그리고 한소영과 신희천(2009)이 개발한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척도의 문항들을 참고하였다. 이와 함께 개방형 질문지를 구성하여 초등학교 3, 4학년생 8명을 대상으로 개인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문항들을 제작하였다. 그

런 다음 이렇게 제작된 예비문항들을 아동들이 이해하기에 적합한 문항들인지와 자기결정 이론의 구성개념에 적절한지를 전문가들의 평정을 통해 확인하여 총 47개의 문항들을 추출하였다.

개발된 47개의 예비문항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연구자들의 가설대로 3개의 요인구조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이명희, 2008)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소영, 신희천, 2009)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명확한 3요인구조를 보이지 않고 자율성과 유능성에서 요인구조가 뒤섞이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 간의 높은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3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결정이론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7로 적정 수준의 신뢰도임을 확인하였고, 최종적인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역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시 한 번 3요인 모델이 적합함을 입증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최종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유사척도들을 사용하여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자율성에 대해서는 자기결정행동 척도를, 유능성에 대해서는 자기효능감척도를, 그리고 관계성에 대해서는 어머니-애착척도를 사용하여 상관을 분석한 결과, 모두 적절한 관련성을 보여 수렴타당도가 입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가설과는 다르게,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유사척도들 모두가 각각

의 세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과 고르게 상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율성과 유능성의 경우, 각각 자기결정행동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이 더 높을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관계성과 유사하게 애착척도와의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우선 자기결정이론에서 말하는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들의 높은 관련성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이 초등학생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욕구들이 만족되는 상황이 따로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다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높다고 인상을 받았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들 간에 서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모두 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La Guardia 등(2000)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명희와 김아영(2008), 한소영과 신희천(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본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척도가 외적 준거인 다면적 생활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변수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상관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욕구만족과 고르게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동시에 투입한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척도는 다면적 생활만족도를 35%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능성이 .39, 자율성이 .17, 그리고 관계성이 .11의 상대적 기여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어머니-자녀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척도가 다면적 생활만족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세 가지 기본 심리

적 욕구 중에서도 유능성의 설명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자율성, 관계성 순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율성이 관계성과 유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되는 욕구이며 정신건강에 핵심적인 요인임을 주장했던 것(Ryan, 2005)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한소영과 신희천(200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덕진과 양명환(2006)의 교양체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세 가지 욕구 중 유능성이 심리적 안녕감과 동기와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릴 때부터 학업성취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국 사회문화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써, 부모로부터 자신감과 유능성을 지지받는 것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추가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면적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과 어머니-애착척도의 설명력을 제외하고도,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이 독립적으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서, 준거관련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역시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청소년 혹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 척도와는 별개로 아동들의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이상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경기지역에 있는 일부 초등학교의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초등학교 1, 2학년생들과 같이 좀 더 어린 아동들은 제외시켰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때에는 좀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아동들에게 적합한 문항들을 개발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 의존하고 중요시하였다. 하지만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된 8명의 초등학생들이 한국의 초등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제한점이 따르며, 이렇게 현장조사를 통해 제작된 문항들은 자칫 자기결정이론에서 말하는 구성개념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비록 전문가들의 평정을 거쳐 이론적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다시 확인하여 측정도구로서의 타당성을 좀 더 보완해 가야할 것이다.

셋째, 이렇게 얻어진 문항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욕구만족을 측정한다기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엄마와 같이 있을 때 기분이 좋다’와 같은 문항은 욕구만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보기 쉽지만, ‘엄마는 내가 잘 할 거라고 믿어주신다’와 같은 문항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사전에 예상하기는 했으나, 아동들의 특성상 성인에 비해 추상적 사고나 감정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실제 인터뷰과정에서도 감정이나 느낌에 대한 진술 보다는 실제 상황 및 행

동에 대한 묘사가 많았음을 감안하여 제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연구에서는 욕구만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가야할 것이다.

넷째, 개발된 척도의 문항들을 보면, 유능성 욕구와 관계성욕구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5문항인데 반해, 자율성욕구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4문항으로 하위요인들 간 문항의 수가 같지 않다는 점을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초등학교생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도 다른 욕구들에 비해, 자율성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였고, 문항을 제작함에 있어서도 초등학교생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하면서도 자율성의 개념을 분명하게 살리는 게 쉽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결정 이론에서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율성의 개념을 잘 반영한 문항들을 좀 더 추가시켜 척도를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부모 모두로부터의 욕구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비록 아동기에는 어머니가 주 양육자이면서 양질의 양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안녕감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본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척도는 신뢰도 및 타당도가 입증된 척도로 앞으로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인 어머니와의 관계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초등학교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는 어머니인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기본 심리적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어머니들에게 자녀의 삶을 높이고 정신건강 및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할지 안내하고 교육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기결정이론에서 주장하는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덕진, 양명환 (2006). 체육수업 상황에서 기본적 욕구, 동기유형 및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모형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7(1), 25-45.
- 김선희 (2006). 체벌행동과 애착안정성 및 아동 부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이명희, 전해원, 이디솜, 임인혜 (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유능감 및 관계성과 비행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21(4), 945-967.
- 김은영 (2007). 남녀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79-1100.
-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1), 243-

- 264.
- 문은식(2007).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9(4), 1087-1108.
- 안도희, 박귀화, 정재우 (2008). 자율성지지, 기본적인 욕구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5(5), 315-338.
- 옥 정(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희 (2007). 학습장면에서 자기결정론의 동기화 경로 모형검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미, 이양희 (2005).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121-137
- 차정은(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희, 新井 邦二郎 (2003). 아동의 자기결정에 대한 한·일간의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3), 135-154.
- 최희철, 황매향, 김연진 (2009). 아동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안녕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23(3), 561-579.
- 한소영, 신희천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39-464.
- 한혜진 (2002). 자기주장훈련이 초등학생의 자기 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홍세희 (2007).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Long, J. 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Chirkov, V., & Ryan, R. M. (2001). Parent and teacher autonomy-support in Russian and U. S. Adolescents: Common effects on well-being and academic motivation.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32, 618-635.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Deci, E. L., & Ryan, R. M. (2002a).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pp.3-33).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Gagne, M. (2003). The role of autonomy support and autonomy orientation in prosocial behavior engagement. *Motivation and Emotion*, 27,

- 199-223.
- Hahn, J., & Oishi, S. (2006). Psychological needs and emotional well-being in older and younger Koreans and America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689-698.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4th ed., pp.275-385). NY: Wiley.
- Huebner, E. S. (1991a). Initial development of the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2*, 231-240.
- Huebner, E.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 149-158.
- Illardi, B. C., Leone, D., Kasser, R., & Ryan, R. M. (1993). Employee and supervisor ratings of motivation: Main effects and discrepancies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and adjustment in a factory sett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1789-1805.
- Kahneman, D., Diener, E., & Schwartz, N. (Eds), (1999).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Kasser, V. G., & Ryan, R. M. (1999). The relation of psychological needs for autonomy and relatedness to vitality, well-being, and morality in a nursing hom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935-954.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367-384.
- Meyer, B., Enstrom, M. K., Harstveit, M., Bowles, D. P., & Beevers, C. G. (2007). Happiness and despair on the catwalk: Needs Satisfaction, well-being, and personality adjustment among fashion model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 2-17.
- Niemiec, C. P., Lynch, M. F., Vansteenkiste, M., Bernstein, J., Deci, E. L., & Ryan, R. M. (2006).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autonomous self-regulation for college: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socializ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9*, 761-775.
- Niemiec, C. P., & Ryan, R. M. (2009).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in the classroom: Applying self-determination theory to educational practice.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7*, 133-144.
- Ratelle, C. F., Larose, S., Guay, F., & Senecal, C. (2005). Perceptions of parental involvement and support as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persistence in a science curriculum.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 286-293.
- Ratt, H., Bonsel, G. J., Essink-Bot, M., Landgraf, J. M., & Gemke, R. (200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comprehensive health status measures in children: The Child Health Questionnaire in relation to the Health Utilities Index.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55*, 67-76.
- Reeve, J. (2005).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4th ed.). Hoboken, NJ: Wiley.

- Reinboth, M., Duda, J. L., & Ntoumanis, M. (2004). Dimensions of coaching behavior, need satisfaction, and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fare of young athletes. *Motivation and Emotion*, 28, 297-313.
- Reis, H. T., Sheldon, K. M., Gable, S. L., Roscoe, J., & Ryan, R. M. (2000). Daily 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419-435.
- Ryan, R. M. (1993). Agency and organization: Intrinsic motivation, autonomy, and self in psychology development. In J. Jacobs (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40.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motivation* (pp.1-56).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Ryan, R. M. (2005). The developmental line of autonomy in the etiology, dynamics, and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 987-1006.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 78.
- Ryan, R. M., & Deci, E. L. (2002a).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 Ryan, R. M., & Deci, E. L. (2002b).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pp.3-33).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7). Personal discussion at The Third International Self-Determination Theory Conference. University of Toronto.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Ryff & Singer,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 1-28.
- Sheldon, K. M., Elliot, A. J., Kim, Y., & Kasser, T. (2001). What's satisfying about satisfying events? Testing 10 candidate psychological nee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325-339.
- Sheldon, K. M., Ryan, R. M., & Reis, H. T. (1996). What makes for a good day? Competence and autonomy in the day and in the pers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1270-1279.
- Sheldon, K. M., & Niemiec, C. (2006). It's not just the amount that counts: Balanced need satisfaction also affects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331-341.
- Soenes, B., Vansteenkiste, M., Lens, W., Luyckx, K., Goossens, L., Beyers, W., & Ryan, R. M. (2007). Conceptualizing parenting autonomy support: adolescent perceptions of promoting of independence versus promotion of volition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3, 633-646.
- Standage, M., Duda, J. L., & Pensgaard. (2005).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 411-433.
- Timothy, R. Hinkin (1995). A review of scale development practices in the study of

- organization. *Journal of Management*, 21, 967-988.
- Vansteenkiste, M., Lens, W., Soenens, B., & Luyckx, K. (2006). Autonomy and relatedness among Chinese sojourners and applicants: Conflictual or independent predictors of well-being and adjustment? *Motivation and Emotion*, 30, 273-282.
- Veronneau, M-H., Koestner, R. R., & Abela, J. R. Z. (2005). Intrinsic need satisfaction and adolescents: An application of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 280-292.
- Vierling, K. K., Standage, M., & Treasure, D. C. (2007). Predicting attitudes and physical activity in an "at-risk" minority youth sample: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8, 795-817.
- Waters, E. B., Salmon, L. A., Wake, M., Wright, M., & Hesketh, K. D. (2001). The health and well-being of adolescents: A school-based population study of the self-report Child Health Questionnair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9, 140-149.

원 고 접 수 일 : 2010. 05. 24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7. 01

게 재 결 정 일 : 2010. 08. 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 in Mother-Child Relationships for Korean Children

Gyo-Young Jeong

Hee-Cheon Shin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 (BPNS) in Mother-child relationships for Korean children give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SDT). Literature reviews on the Self-determination and the results of preliminary interview were used to create items. Forty seven candidate items were administered to children in grades 3 and 4. The result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a three-factor structure: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And the further item analysis resulted in 14 items as the final version. The final 14 items were administered to children in grades 3 through 6. The evidence of the construct validity was obtained from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convergent validity of the scale was supported by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ffered an evidence of criterion-related and discriminant validity. Results are also discussed in terms of the potential utility of the scale.

Key words :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Mother-Child Relationships, Validate.